

우리의 세계를 치유하기 (2부)

| 메리 루와트 | 심정요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진정한 부는 화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원과 인간의 창조적 아이디어에서 나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부는 무한하다!

부는 기존의 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할 때 생겨난다. 창조성은 사실상 무한하므로, 부 역시 마찬가지다.

세금 징수나 기타 침해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건 아닌지 살펴보려면, 먼저 부가 무엇이며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돈과 부를 동일시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르다. 10억 달러 어치 금화를 지닌 사람이 음식, 물, 집, 약이 없는 황량한 섬에 갇혔다고 치자. 이 사람은 부자일까? 당연히 아니다! 음식, 물, 집, 약 등 물리적 생존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진정

한 부이다. 돈은 물건이나 서비스 등 다른 가치와 교환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돈은 어떤 사람이 부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다. 어떤 부도 가능하지 않다면, 돈은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부는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것일까? 2000년 부의 총합을 생각해보라. 고대의 가장 큰 부자가 자식들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 항생제, 마취제, 혹은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시절의 오락거리가 오늘날 TV가 제공하는 오락거리만큼 질이 높고 선택폭이 넓으며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몇 분 안에 바로 알게 될까? 수백 만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을까? 몇 시간 내에 ‘프렌들리 스카이’ 내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을까? 고대에 아무리 부자였다 해도 현대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상상조차 못했던 생활 방식을 즐기고 있다. 우리의 부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면 이 모든 부는 어디서 났는가? 현재 지구의 자원이 고대에 비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대신 기존의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법을 발견했다. 석탄, 석유, 천연 가스는 상상도 못했던 힘을 주었다. 우리는 동력을 전선으로 전송하여 위성으로 통신한다. 항생제는 곰팡이로 만들며 이 곰팡이는 체내에 침입하는 전염성이 강한 박테리아를 퇴치하는 데 이용된다. 면역 체계를 백신으로 무장시킨 덕에 과거의 페스트는 모두 사라졌다. 인공 날개는 전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를 실어 나른다. 대량 생산, 조립 라인과 자동 기계 장치는 부를 복제하고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데 일조한다. 새로운 부는 더 큰 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테면, 화석 연료에 밀집된 에너지는 새로운 합금 방법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합금 방식을 쓰려면 목재 연료보다 용해 온도를 높여

야 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다른 아이디어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기존의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하는 아이디어와 이러한 아이디어의 복제가 부의 진정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연 자원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개인이나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육성하고 개발해야 풍성해진다. 이를테면 석유는 한때 비옥한 농토를 망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었다. 사람들이 석유를 퍼 올리고 정제하여 “검은 황금”으로 탈바꿈시키기 전까지는 말이다. 물 역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때까지 ‘개발’해야 한다. 국가가 창출하는 부의 정도는 본래 천연 자원 ‘씨앗’의 보유량과는 무관하다. 일본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고 멕시코는 풍부하지만 일본인이 확실히 멕시코인보다 영향력이 크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북한은 남한보다 가난하다. 동독은 1990년 통일 이전에도 서독에 비해 부를 덜 창출했다. 분명, 자원의 보유량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아니다. 인구 밀도 역시 주요인이 아니다. 일본과 서독은 빈국인 멕시코와 동독보다도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

자원이 지구보다는 행성에서 나온다는 사실,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온전히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 기본적인 화학 물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자원의 씨앗은 너무나 풍부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어떠한 물질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어리석게도 화석 연료를 다 써버린다 한들, 에너지는 각각의 모든 원자에서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얼마나 안전하게 활용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말이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환경에 해를 끼치는 수단을 써서 이 세계를 파괴했다 해도 다른 행성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 말이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언제 어느 때고, 인적 자원,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아이디어의 복제가 우리가 거머

질 수 있는 부의 양을 좌우한다. 인간의 창의성은 무한하며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부 또한 사실상 무한하다! 우리는 진정 ‘한계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원의 한계 때문에 부의 창출이 제약을 받는 일은 없다. 이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해방으로 가는 출구다. 국가의 부는 지리학적 경계라는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사상과 대중들의 창조성에 달려 있다. 우리는 스스로 세계를 창조한다. 커다란 부를 즐기면서 이루는 국가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나라 국민은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불가침을 실천하고 개인적, 집단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최고 수준을 누리겠다는 굳건한 문화적 신념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굳건한 문화적 신념을 키워왔다. 그 신념 덕분에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불행히도, 개인 간에 행해지는 침략을 계속 혐오하는 사이, 침략이 상대방을 다루는데 효과적 방법이라는 인식은 집단에서 점차 강화된다. (이를테면 집단끼리 서로를 침략한다) 침략은 대개 다수를 대표하는 권위자에 의해 승인을 받고 정부를 통해 실행된다. 정부를 통한 침략은 부를 창조하는 속도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 주원인이다.

개개인이 홀로 일하든, 여럿이 일하든 부를 어떻게 창조하는지 살펴보자.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행되거나 재생산된다. 이를테면, 가상의 이웃 조지가 의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치자. 공장 주인은 나무 농장 주인에게서 목재를 샀다. 나무 농장 주인은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이 세 사람은 의자라는 형상으로 새로운 부를 창조했다. 이들은 돈으로 의자를 교환함으로써 창출된 부를 공유한다. 다음에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만든 부와 맞바꾼다(이를테면 음식, 옷 등).

부는 창조자에게 귀속된다. 이 세 사람은 의자를 만드는 데 일조했

다. 이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부는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조지의 집에 총을 들고 쳐들어가서 그가 창조한 부를 빼앗아 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는 보복을 할 테고 우리는 가해자에서 희생자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정글과도 같은 분위기가 이웃 간에 만연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의 가치는 투쟁 속에서 소비되는 부와 마찬가지로 급락할 것이다. 노력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깨어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각자 불가침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개인이 조지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웃 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의 집행기관 직원이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수의 권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건다면 훔치는 행위도 고결한 것으로 승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불가침의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웃 집단이 정부에 다른 이웃 집단의 물건을 훔쳐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다수와 소수, 희생자와 가해자가 되기를 반복할 것이다. 정글 같은 분위기가 만연하고 부 대신 전쟁을 일으키는 쪽으로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깨어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집단이 불가침을 실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원칙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부

현재의 부


미래의 부

시장의 생태계

미국의 건국자들은 불가침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공동체, 주, 국가에서 사람들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상호 네트워크가 ‘시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시장은 자연의 열대림, 바다의 생태계와 유사점이 많다. 시장과 지구의 생태계는 고유한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자기 제어를 한다. 둘 다 상호 보완적 틈새가 창출하는 다양성에 우리처럼 강제로 전체적 균형을 이루려고 간섭하지 않는다. 시장을 침략하는 행위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균형을 무뜨린다. 어떤 사용자들은 틈새를 파괴시킨다. 그 결과 다양성이 사라진다.

‘자유 시장’은 침략이 없는 시장의 생태계에 부여된 이름이다. 1800년에 미국은 이상에 근접했다. 몹시 가난했던 이민자들은 국가를 이루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주려 했다.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부는 침략 없는 시장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부산물이다. 후에(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침략 행위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동독이 통일하기 전에는 ‘자유세계’ 경쟁국보다 훨씬 낮은 부를 창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창기에도 시장 생태계는 침략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제약 회사가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팔거나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혼란에 빠진 소비자나 생존자들은 최소한의 자원만 갖게 된다. 침략은 유명한 사기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개인들에 의해 널리 행해졌다.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 불가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들

이 알지 못한 것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이었다. 그 결과 침략이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불가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를 수 없는 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기적인 사람들은 이미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침략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즐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정부에 공격부터 요구하고 침략을 막기 위해 침략을 이용한다. 이들의 모토는 “상대가 네게 해를 가하기 전에 네가 먼저 선수를 쳐라.”이다. 침략이라는 ‘악’과 맞서기 위해 이들은 스스로 침략자가 되고, 그 결과 이들이 애초에 막고자 했던 것보다 더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끝) 

- 이 글은 <Healing Our World>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메리 루와트** Mary J., Ruwart Ph.D | 미국 중서부의 대제약회사 선임 과학자로 일하며, 성 루이스 의과대학 외과교수였다. 저소득가구의 복지운동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그녀의 일은 'World's Who's Who for Women'이나 'International Leaders in Achievement', 'Community Leaders of America' 등에 등재되어 있다.

역자 | **심정요** | 덕성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하고픈 일을 찾다가 번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외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으며, 바른번역에서 《Business》를 공동번역했다. 그 외 번역서로 김동미 님과 공역한 아동서 《엘로이즈의 목욕 소동》이 있다.